

그림 2. 울중팽창식구명뗏목 전장상태 및 명칭

근모양 2개로 겹쳐진 주기실과 그 사이에 처진 바닥기실 및 수동으로 펴지는 천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실과 하기실은 각각 1개의 탄산가스 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이것으로 팽창하게 되며 공기보충용 혹은 압력 조정용의 고무발브로 부착되어 있다.

또한 바닥기실은 충전펌프로써 팽창되며 이 구명뗏목은 그 구조의 앞뒤가 모두 같으므로 부분품도 같이 앞뒤에 각각 부착되어 있고 그 옆에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곧 알 수 있으며 외항선 박용 갑종 팽창식구명뗏목과 원근해 및 어선용으로 울중 팽창식구명뗏목 2가지 종류가 있으며 6인승부터 25인승까지로 구분된다. (그림 1, 2 참조)

3. 사용방법

가대에 자동색이 묶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가대에 안전핀을 푼 후 침착하게 자동이탈기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구명뗏목을 투하시킨다.

(1) 구명뗏목의 투하

투하장소는 구명뗏목이 손상되지 않고 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고리가 달린 자동색의 끝을 꺼내어 현측의 1개소에 부착시키고 수납대를 그대로 수중에 투하한다. 투하되면 자동색은 수면에 도달할 때까지는 당겨져서 그 끝에 달려있는 작동색이 탄산가스 충전장치의 격침을 움직여 충전장치에서 이탈하며 구명뗏목은 자동적으로 튀어 나온다. 투하할 여유도 없이 배가 침몰하여도 자동이탈기가 가대에 연결되어 있으면 수심 2~3.5m 정도 내려가 자동적으로 작동팽창하여 수면에 부상하므로 구명뗏목의 등을 착용하여 잠시 기다렸다가 구명뗏목에 승선하게 된다. (그림 3 참조)

(2) 구명뗏목에의 승선

구명뗏목이 거의 반정도 팽창하면 차차로 배에서 구명뗏목으로 옮겨 타도 된다. 수중에서 타는 경우에는 사다리로 탈 것.

(3) 부속품 주머니의 인양

부속품 주머니는 뗏목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중에서 인양한다. 부속품은 필요한 것만 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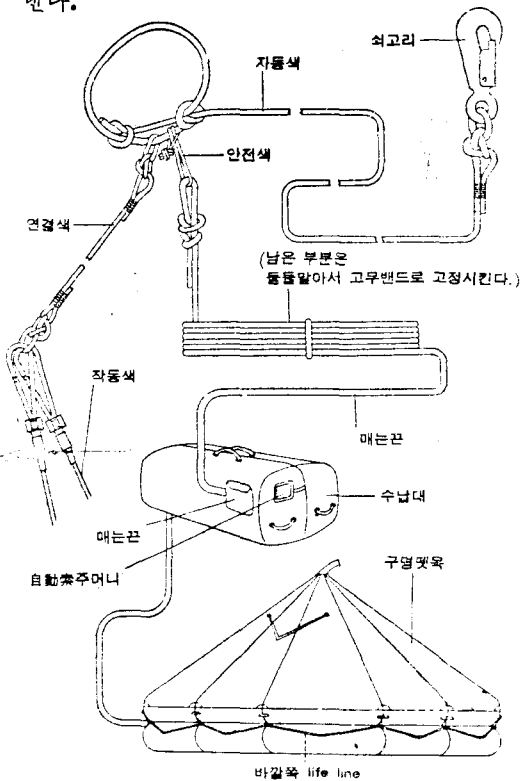


그림 3. 색류연결상태 및 명칭

(4) 충기펌프에 의한 팽창

상기실 하기실 갑판기실 중앙기실에는 각각 고무탈브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충기펌프에 송기관을 부착시켜 수동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다.

(5) 씨앙카 (Sea Anchor)

물속에 잠겨서 끌리면서 뗏목의 표류를 방지하고 또한 파도에 향하여 안전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림 4 참조)

(6) 물퍼개 및 스폰지

침입한 해수가 다량인 경우에는 물퍼개로, 소량인 경우에는 스폰지로 닦고 배수한다.

(7) 노 및 수리용구

노는 본선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항주에는 체력소모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며 수리용구는 고무포·사포·풀 등인데 기실의 누설부분을 응급히 막는 도구이다.

(8) 안전칼 및 수밀전기등

본선에서 이탈할시에 계류색을 절단하는데 사용되며 모르스신호를 할 수 있으며 신호용으로 사용한다.

(9) 일광신호경 및 호루라기

110m/cm² 정도의 크기로 된 거울이며 중앙에 5mm의 구멍이 있어 목표를 겨누어 햇빛의 반사를 이용 신호하는 것이며 호루라기는 뗏목상호간의 연락 또는 구조자가 접근시에 사용.

(10) 낙하산불이 신호 및 신호홍염

낙하산은 로켓트식으로 쏘아올려 발광체가 점화되어 공중에서 30초 이상 부유하고 있으므로 조난자의 존재를 부근의 선박과 항공기에 알리는 신호탄이며 홍염은 손으로 잡고 마찰시켜 점화해서 홍색의 불길을 3분이상 빛을 내게 하여 신호용으로 사용되며 야간사용이 더욱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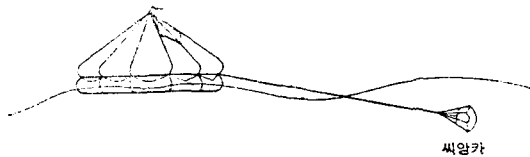


그림 4. 씨앙카와 구멍뗏목의 모양

(11) 생존지도서 구명신호설명서

조난자의 원기를 도울 조난구조 실적 및 각종 참고사항이 기재된 서적이며 구명신호설명서는

그림 5.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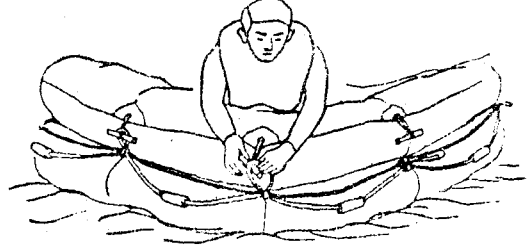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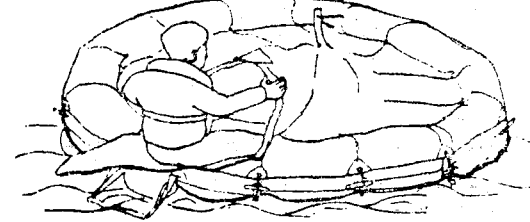


그림 7.



올중 팽창식 구멍뗏목 천막 취부상태

만국공통의 구명신호의 송수신 해독지도서이다.

(12) 천막펴는 법

뗏목의 바깥쪽 일부에 천막이 뭉쳐져 있을 때에는 천막스빔을 벗기고 뗏목 위에 펼친다. 펼쳐진 천막을 천막 주위의 끝에 달린 걸쇠를 부착끝의 고리에 걸고 출입구의 작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천막지주를 세우고 바닥을 팽창시키고 천정추부를 팽창시키면 된다. (그림 5. 6. 7. 참조)

4. 의장품의 종류

번호	명 칭	수 량(구멍뗏목 1개당)		
		갑	을	총
1	구조 고 리	1개	1개	1개
2	나 이 프	2"	1"	1"
3	베 일 러	2"	1"	1"

번호	명 칭	수 량(구멍땃목 1개당)			
		잡	을		중
			어선 반선	2,3 선 및 일 선	계 연 및 중 선
4	스 폰 지	2//	1//	1//	
5	씨 앵 커	2//	1//	1//	
6	노	2//	2//	2//	
7	수 리 용 구	1셀	1셀	1셀	
8	총 기 펌 프	1//	1//	1//	
9	강 통 따 게	3개	—	—	
10	응 급 의 료 구	1셀	1셀	—	
11	첩	1개	1개	—	
12	수 밀 전 기 등	1셀	1셀	—	
13	일광 신호 거울	1개	1개	—	
14	호	1//	1//	—	
15	낙하산불이진호	2//	2//	6셀	
16	신 호 홍 열	6//	6//	2개	
17	낙 시 도 구	1셀	1셀	—	
18	구 난 식 량	9식/1인	9식/1인	—	
19	음 료 수	1.5l/1인	1.5l/1인	—	
20	배달미 방지역	6정/1인	—	—	
21	생 존 지 도 서	1권	1권	—	
22	구명신호설명표	1개	1개	—	
23	의장품 수납대	1셀	1셀	1셀	
24	천 막 지 주	—	1셀	1//	

5. 구멍땃목의 용의점

팽창식구멍땃목은 고무제품이며 특수고무이므로 항상적으로 안전성이 좋으며 강체가 아니고 유연하기 때문에 기울지 않고 파도에 부딪쳐도 변형하여 부식의 이동이 없고 복원력의 손실이 적고 설치공간이 적어 소형선박에 적부가 용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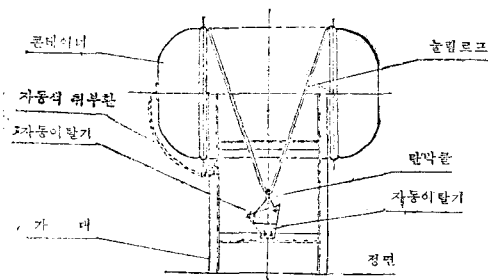


그림 8. 가래에 콘테이너 적부상태

또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비상시 빠른시간내 사용할 수 있는 침등이 용의하다.

6. 적부장소 및 주의사항

(1) 구멍땃목을 선체에 적부할시는 적부사나 사용시 편리하고 진수가 안전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장소라야 하며 본선침몰시에도 자동적으로 부양이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그림 8.9 참조)

(2) 승무원이 집합하여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장소라야 하며 선수부와 선미의 프로펠라 부근은 피해야 하고 필요이상의 로프나 끈으로 묶어두지 말고 가대작동 부분에 페인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자동이탈기에 비닐 등으로 봉하거나 구리스, 페인팅 등을 하면 작동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하며 본선에 적부된 구멍땃목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정비회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7. 땃목의 운반시 주의사항

(1) 운반시에 손칼고리를 사용하지 말 것이며 끄는 것, 던지는 것, 끌리는 것 등을 엄금하여야 하며 구멍땃목을 다른 물체의 밑에 신지 말 것.

(2) 콘테이너 밖에 나온 줄(자동색)을 잡아당기지 말 것이며 콘테이너 실용인 및 납용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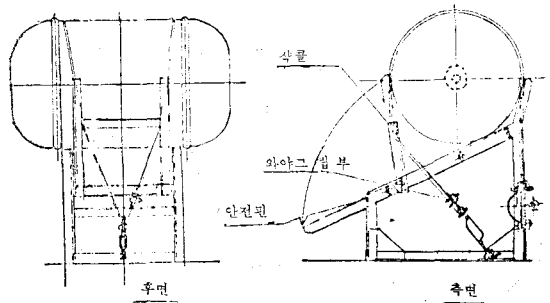


그림 9. 취부된 콘테이너의 후면과 측면

8. 구명뗏목의 정비

구명뗏목을 비치하고 있는 선박은 내국적, 외국적 또는 여객선 어선등을 막론하고 국제협약 (SOLAS)에 의하거나 해운항만청고시에 의하여 정비 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점검·정비의 시기

뗏목의 점검, 정비는 이를 비치하고 있는 선박의 정기검사 또는 제 1종 중간검사의 시기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임시정비

임시정비는 정기점검, 정비의 시기 이외에 훈련 기타 사용으로 인한 파손등의 경우에 행한다.

(3) 점검·정비의 장소

구명뗏목 점검, 정비는 소유자가 국가로부터

구명뗏목 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정비업자에게 점검 정비를 의뢰하여 지정된 정비장소에서 검사원에 의하여 정비, 점검이 확인되고 이상이 없을시는 구명뗏목에 대한 정비기록부가 작성되어 첨부되므로 점검, 정비가 완료되는 것이다.

팽창식구명뗏목을 우리나라 어선에는 1977년 5월 10일 교통부령 제564호에 의거 적부 시행하여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미인식하고 있을지 모르나 외국선박 등은 구명뗏목을 사용하여 고귀한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무수히 많으며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어선등도 구명뗏목으로 인명구조되었음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우리는 구명뗏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사용방법이나 적부방법 정비등을 철저히 인식하여 고귀한 인명을 구조하는데 최대한 활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